

특집 최신 디지털 방송기술 II

나만의 방송국 : PVR

□ 이규택 / 주 디지털엔지니어링 대표이사

Digital Broadcasting Technology

- 테이프 없이 하드디스크에 녹화, 재생
- PVR과 DVD플레이어의 콤보(JUBILO Combo) 제품도 나와...
- 공중파방송, 케이블방송 및 위성방송 녹화/재생
- 인터넷 및 휴대폰으로 녹화 예약도 가능
- 홈 네트워크, 홈 시큐리티 등의 기능을 갖는 홈서버로 발전

PVR은 Personal Video Recorder의 약자로서, 우리말로로는 개인용 비디오 녹화기라고 번역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용 비디오 녹화기라는 말만으로는 PVR의 실체를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PVR은 가끔 '디지털 VCR'이라고도 불리는데, 기존의 테이프 삽입 형식의 아날로그 VCR 대신 영상을 하드디스크에 녹화하고 편리하게 재생해 볼 수 있는 디지털 가전제품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단순히 하드디스크에 영상을 녹화하

는 기기는 DVR(Digital Video Recorder) 또는 HDR(Hard Disk Recorder)이라고 하는데, DVR이라는 용어는 보안용으로 CCTV에 연결해서 녹화하는 장치로 많이 불리기 때문에 가정용 하드디스크 녹화기라는 의미의 HDR로 용어의 정리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서의 PVR이란 HDR에 EPG(Electronic Program Guide)기능을 추가하여 개인화 및 시청 편의성을 극대화 시킨 것을 말한다.

이러한 PVR을 시장에 처음 내놓은 회사는 미국의 TiVo이다. 이 회사가 처음으로 PVR을 시장에 내놓았던 1999년 말에는 여느 신제품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그다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불과 3년 여가 지난 지금 TiVo는 미국 내에서 가장 잠재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자리잡고 있으며, TiVo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PVR 서비스는 고객들의 욕구를 충족



TiVo의 "시리즈2DVR"



소니의 "DNR"



디지털앤디지털의 "JUBILO-Combo"

(그림 1) 미국, 일본, 한국의 PVR

시킴과 동시에 방송사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그 이유는 시청자들이 PVR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청형태를 갖게 되었고, 이것이 방송사들에게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다.

PVR의 상업적/사회적 효과는 VCR이 출시되어 소비자들에게 주목 받던 시점의 그것 이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0여년간 VCR을 이용해서 단순하지만 어려운 방법의 예약녹화를 하고(그래서인지 VCR로 예약녹화를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결국 녹화기보다는 재생 전용으로만 사용하는 기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형편이다.) 재생되는 화질의 저하를 불평해 왔지만, PVR은 과거 VCR이 갖고 있는 모든 불편을 없애고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편리성을 제공한다.

국내에서는 2002년 6월 국내 기술진에 의해 처음 제품이 출시되었으며 이는 세계에서는 4번째로 출시에 성공한 것이었다. 국내에 출시된 PVR은 현재까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DVD 플레이어와 콤보 제품인 "PVR-DVD Combo"까지 출시되었다. 또한, DVD레코더, CD레코더, 외장 HDD, PVR용 무선랜 장치 등 각종 주변기기들까지 나와 방송을 이제까지의 일방적인 시청형태에서 시

청자가 원할 때 원하는 프로그램만 볼 수 있는 개인화의 개념으로 전환시켜 주고있다. TV를 보면서 생방송 일시정지, 실시간 예약, TV화면상으로 편성정보 보기, 편성정보를 보면서 채널 전환, 예약 녹화, 시리즈 녹화 등 PVR은 TV를 보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꿔준다. 기존의 시청습관에 일대 변혁을 가져올 일종의 문화적 충격이 생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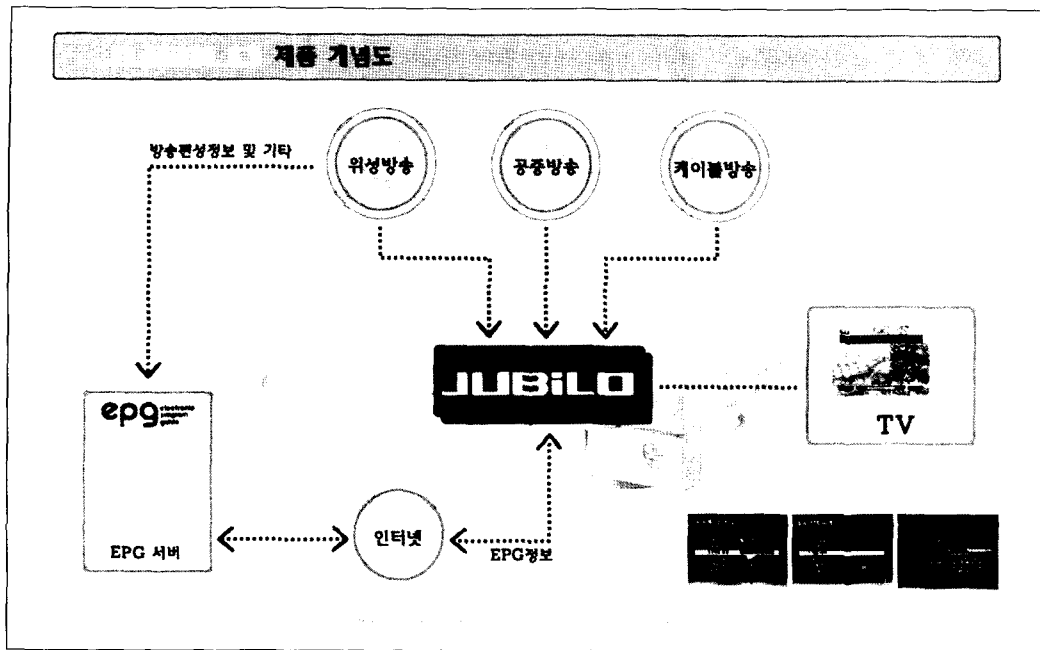
지금부터 PVR의 개념 및 기본적인 기능, 그리고 PVR이 향후 방송 및 가전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PVR의 개념

1) 하드디스크를 이용한 디지털 녹화 및 재생

시간이 지나면 화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녹화방법이나 보관이 불편한 아날로그 VCR을 대체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개발된 것이 PVR이다. <그림 2>는 그런 생각의 발상에 대한 밑그림이다.

PVR은 기본적으로 하드디스크에 영상을 녹화한다. 하드디스크가 저장장치로 각광 받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초기의 하드디스크 들은 가전제품 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안정성 및 소음에 문제가 있었다. 그



〈그림 2〉 PVR-DVD 콤보 제품인 “쥬빌로 콤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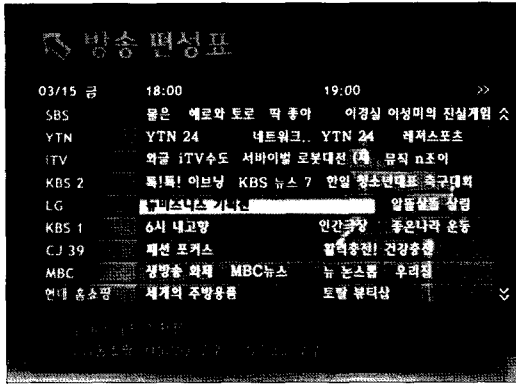
렇지만, 최근 PC 시장의 침체에 따른 타개책의 일환으로 많은 하드디스크 제조사들이 가전 시장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가전제품 용으로 적합한 하드디스크를 별도로 만들어내고 있다. 하드디스크 외관에 고무 등으로 되어있는 진동방지 및 소음방지 처리를 한 것들이 그것이다.

공중파 방송, 케이블 방송 및 위성방송 등 외부에서 들어온 아날로그 방송신호는 PVR 내부의 인코더(Encoder)에 의해 디지털화(Digitizing)되어 하드디스크에 저장됨과 동시에 다시 디코더(Decoder)에 의해 아날로그 신호로 전환되어 TV로 보내지게 된다. 결국 하드디스크에 디지털로 저장된 신호를 TV로 보내주기 때문에 시청자는 TV를 시청하던 중에 급한 일이 있으면 일시정지 버튼을 이용하여 잠시 멈출 수도 있고, 못보고 지나간 장면이 있다면 생방송을 보던 중이라도 언제든지 다시

돌려볼 수 있다. 마치 컴퓨터상의 메모리 공간에 저장된 정보처럼 따로 저장을 하지 않아도 일정한 분량의 방송은 PVR 안에서 항상 버퍼링(buffering)되고 있는 것이다.

2) EPG와 연동되는 개인화 (Personalization)

PVR이기 위해서는 EPG(Electronic Program Guide)와 연동된 프로그램 녹화 및 안내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이미 언급한대로 EPG가 연동되지 않은 하드디스크 녹화기는 HDR 또는 DVR이라고 불리운다. 즉, 영상을 하드디스크에 단순히 저장하는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넘지 못하는 셈이다. EPG는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은 물론 디지털 위성방송까지 시청 가능한 모든 방송의 편성정보 및 세부정보를 제공해 주고 TV 시청 중에 이러한 방송 편성표와 세부내용을 보고 간단히 예약 녹화 및 시리즈 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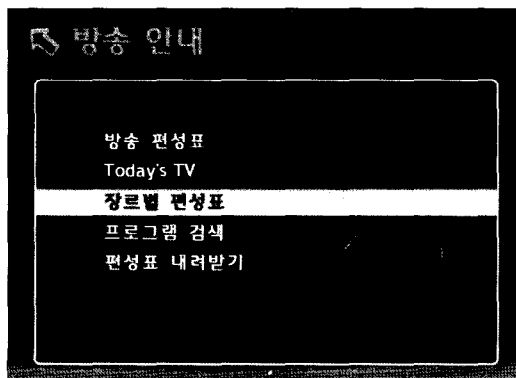
〈화면 1〉 PVR “JUBILO”의 방송편성표 화면

가 가능하게 해 준다. 케이블 방송의 경우에는 생활하는 지역에 따라 채널번호의 차이가 있어도 초기 세팅 시에 사는 지역과 케이블 셋톱박스의 제조사 등을 입력해주면 그 이후엔 자동으로 매일매일 시청 가능한 정보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는다. 인터넷을 검색하듯이 방송을 검색해서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내가 보고싶은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PVR의 핵심기능이며 다음 “화면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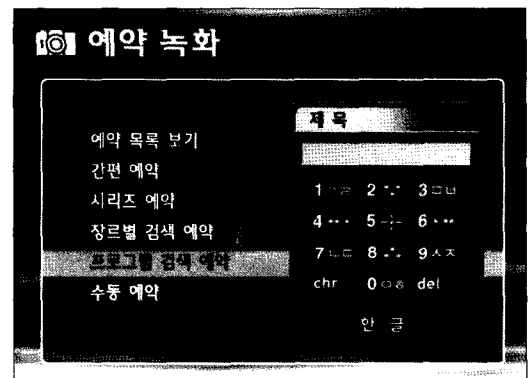
PVR의 메뉴 중 EPG의 기본메뉴는 〈화면 2〉와 같

다. EPG는 방송 편성표 보기, 오늘의 TV, 장르별 편성안내, 검색, 편성표 내려 받기 등 5가지의 하위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 편성표는 “화면 1”처럼 우리가 눈에 익은 신문의 TV 편성 안내 표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듯이 상.하.좌.우 버튼을 이용하여 오늘 저녁의 편성표를 보거나 주말의 편성표까지 쉽게 볼 수 있으며 편성표 상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예약녹화를 하면 PVR이 그 시간대에 해당 방송을 알아서 녹화해 준다. PVR의 파워를 꺼 놓아도 지정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파워가 켜지고 녹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EPG를 이용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시청을 하게 된다. 방송국에서 편성하고 송출해주는 대로의 수동적 시청패턴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녹화된 TV 프로그램은 PVR의 “재생 목록” 메뉴에서 볼 수 있다.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일주일간의 방송 편성 중 좋아하는 다큐멘터리만 볼 수 있으며,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드라마만 시리즈 녹화를 하여 원하는 시간에 편하게 볼 수도 있다. 프로그램의 검색화면은 〈화면 3〉과 같다.



〈화면 2〉 PVR - “JUBILO”의 EPG 초기화면)



〈화면 3〉 PVR “JUBILO”의 프로그램 검색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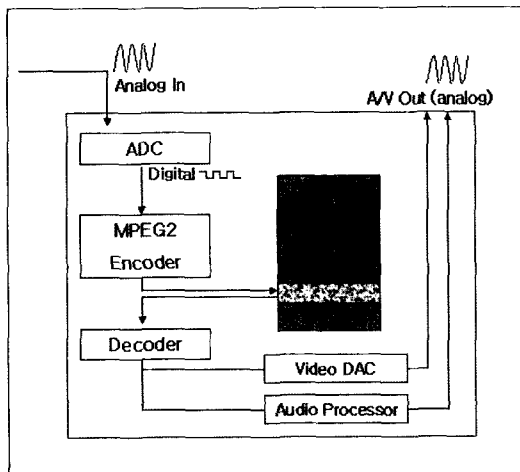
이상 1)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드디스크를 이용한 녹화, 재생 및 시간차 재생 등 HDR의 기능과 예약녹화, 시리즈 녹화, 검색 및 방송정보 서비스의 EPG 기능이 합쳐지면 PVR이 완성되는 것이다. 하드웨어적인 구현 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가 합쳐져야 비로소 PVR이 되는 것이다.

2. PVR의 기술적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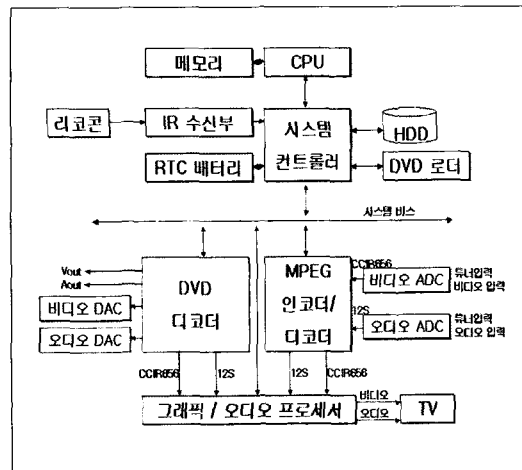
이러한 PVR의 기능은 <도면 1>로 간단히 설명될 수 있다. <도면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날로그로 들어오는 방송신호는 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에 의해 디지털 신호로 전환된다. 이렇게 디지털로 전환된 신호는 MPEG-2 Encoder를 거쳐서 디지털TV 표준인 MPEG-2로 압축되어 하드디스크에 자동적으로 저장이 된다. 또한, 저장과 동시에 MPEG-2 Decoder에 의해 압축을 풀면서 DAC(Digital to Analog Converter)를 이용하여 아

날로그 신호로 전환한다.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로 전환된 방송신호는 PVR의 출력 단자를 통해 외부로 출력된다. 이 신호가 TV의 A/V 입력단자를 통해 TV화면상에 보여지게 되며, 최초 PVR의 아날로그 입력단자로 들어온 것과 같은 방송화면이 TV상에 보여지는 것이다. 같은 아날로그 방송신호이지만 이렇게 PVR 내에서 하드디스크를 거쳐오기 때문에 시청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일시정지 및 다시 보기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PVR의 하드웨어 시스템을 좀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도면 2>와 같다. 일반적인 PVR의 여러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장치는 <도면 2>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술적인 접근 방법은, PVR과 시청자간의 리모컨을 이용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청자로 하여금 방송국에서 보내오는 방송신호를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실제로 9시 뉴스를 밤 11시에 보거나 주말에 하는 영화를 일요일 오후에 보는 것이 거의 녹화 시간의 제약 없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도면 1>



<도면 2>

것만으로는 진정한 PVR을 설명할 수가 없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PVR의 걸 모습일 뿐이다. PVR이 개인용 비디오 녹화기인 것은 PVR이 단순히 영상정보를 저장했다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 나만의 방송국 : PVR

PVR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이 되고 어떤 경로를 거쳐 작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은 실제로 PVR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PVR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PVR이 어떻게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먼저, TV를 시청 중에 빨리 감기, 되감기, 점프, 정지화면, 책갈피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재미있는 방송을 보다 급한 일이 있으면 "일시정지"를 해 놓으면 그만이다. 방문자와 이야기를 하다 오거나 잠시 화장실을 다녀와서 "재생"버튼을 누르면 마치 비디오를 보던 것처럼 그 장면부터 다시 재생이 된다. 천편일률적이었던 방송이 그때부터는 시간차로 인해서 옆집과 다른 화면이 되는 것이다. 앞서나간 부분은 PVR의 하드디스크 안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재미없는 부분이나 광고가 나오면 그 부분은 뛰어넘어 갈수도 있다.

녹화 기능은 아날로그 VCR을 사용할 때와는 달리 굉장히 편하면서도 지능적으로 진화했다. 지금까지 VCR 테이프를 넣고 해야 했던 녹화를 TV 시청 중 아무때나 원 터치로 녹화할 수도 있다. 물론 테이프는 필요 없으며 테이프를 쌓아두고 보관할 필요도 없다. 보고 싶을 땐 언제든지 PVR의 재생목록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컴퓨터나 CD, DVD 등으로 별도보관, 저장도 가능하다. 또한, 일주일치 편성표를 보고 원하는 프로그램

를 쉽게 예약녹화 할 수도 있다. 마치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장르별 / 제목별 / 출연자 및 제작자 별로 검색한 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녹화 할 수도 있다. 즉,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이름을 넣으면 그 사람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전부 찾아준다. 또한 "영어회화"를 입력하면 영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전부 찾아준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를 시리즈로 녹화 해 놓을 수 있다. 한번 시리즈로 지정을 해 놓으면 PVR은 해당 프로그램의 시리즈가 종료 될 때까지 알아서 전부 자동 녹화를 해 준다. 갑자기 생긴 약속 때문에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놓칠 걱정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PVR의 또 다른 장점은 녹화 방식이 디지털이므로 화질의 저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녹화된 프로그램을 10번 아니 100번 이상을 보더라도, 아무리 긴 시간을 저장했다가 보더라도 화질과 음질에 전혀 변화가 없다.

이러한 기능들 때문에 PVR은 기본적으로 시청의 패러다임을 바꿔준다. 일반적으로 TV를 시청하는 형태는 자신이 집에 있는 시간대에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전부였다. 밤늦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새벽에 하는 프로그램, 낮에 하는 프로그램 등은 보고 싶어도 그 시간대에 TV 앞에 앉아있지 않기 때문에 시청 자체를 포기하곤 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다. 모든 방송 프로그램이 시청이 가능하며,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만을 보게 되는 것이다. 더 이상 TV 시청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보고싶지 않은 프로그램을 내가 그 시간에 TV 앞에 앉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볼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즉, 내가 과거에 보는 프로그램의 편성권이 방송국에서 나에게로 넘어온 것이다. 앞으로는 개개인 별로 "나만의 방송국"을 갖게 되는 셈이

[표 1] PVR을 사용할 때의 편이성 예

● Before ●	● After ●
자녀를 위해 항상 EBS 강의를 녹화한다. 마침 동창회에 나갔으나 늦어져 녹화를 하지 못했다. 자녀들에게 미안해진다. 다시는 볼 수 없다.	자녀를 위해 항상 EBS 강의를 녹화한다. VCR은 예약녹화가 어렵고, 또 정해진 테이프 시간만큼만 가능했지만 PVR을 사용하면 친구모임에 늦게 들어와도 모든 EBS 프로그램을 시리즈로 녹화할 수 있다.
즐거보는 드라마를 보다가 라면이 끓어오르거나 초인종이 울리면 눈을 떼지도 못하고 간다. 농친 장면이 많아 결국 재방송을 보게 된다.	즐거보는 드라마를 보다가 라면이 끓어오르거나 초인종이 울리면 가볍게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다. 잠시 일을 보고 돌아와 연속으로 시청한다. 가끔은 되감기, 빨리 감기를 하면서 TV를 본다.
갑자기 할 일이 없을 때 아무 생각 없이 TV를 켜다.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다가 어느 채널에서 멈춘다. 별로 보고싶지 않지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냥 앉아 있었다.	시간이 났다. TV를 켜고 PVR의 재생목록으로 간다. 필요한 프로그램, 내가 즐겨보는 프로그램만 있다. 기쁜 마음으로 골라볼 수 있다.
아이들 모습을 캠코더에 담았다. 아이들 모습만 잘라서 보관하고 싶는데 마땅치가 않다. VCR을 하나 더 빌려서 시도해 보아도 화질이 너무 나쁘고 꽤 귀찮은 일이다. 할 수 없이 원본을 편집 못하고 그냥 보관한다.	아이들 모습을 캠코더에 담았다. 아이들 모습만 보관하고 싶으면 PVR의 편집기능을 이용해 아이들 모습이 나온 부분만 별도의 영상으로 저장한다. 화질도 원본과 똑같다. 그리고 변함도 없다.
나는 골프를 매우 좋아한다. 하지만 비싼 교습을 받기도 쉽지않고 TV상에서 배우는 것도 한계가 있다.	교본이 될만한 골프강좌를 녹화하고 주요장면에서 일시정지, 장면탐색, 구간반복, 1/8 속도로 천천히 보기 등을 한다. 타이어 우즈의 샷도 1/8 속도로 본다. 자신과 비교해가며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신문을 펴고 TV 편성표를 본다. 내가 볼 수 있는 시간에 하는 프로그램 중에 고른다. 아무리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라도 내가 집에 없는 시간이면 볼 수가 없다.	PVR의 편성정보를 본다. 방송 편성 스케줄에 구애 받지 않고 원하는 방송을 찾는다. 때론 인터넷처럼 프로그램 검색을 하기도 한다.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예약을 하고 언제든지 편하게 볼 수 있다.
퇴근 후에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 저녁에 항상 보던 드라마를 못 보게 생겼다. 방법이 없다. 어쩔 수 없이 못 본다.	퇴근 후에 갑자기 약속이 생겼다. 저녁에 항상 보던 프로그램이 생각났다. 휴대폰을 열고 나의 TV정보를 통해 우리집의 PVR로 연결을 하였다. 녹화를 하고 부담 없이 약속장소로 간다.

다. <표 1>은 PVR을 사용할 때의 편이성을 Before / After 로 나누어 간단히 비교해 본 것이다.

4. 홈 서버로의 발전

PVR은 다양한 외부기기들과 호환이 된다. 디지털 가전은 아날로그 가전과는 달리 PC와 같이 CPU와 다양한 기능의 구현이 가능한 각종 칩들이 내장되어 있고 운영체제도 들어있다. 이는 무한한

기능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부방에 있는 PC는 모뎀이나 인터넷 전용선 등과 연결되어 집에서도 마치 회사에 있는 것처럼 각종 작업을 할 수 있게 하지만 지금까지의 아날로그 가전 제품들은 독자적으로만 기능을 하지 네트워크는 기대하기 힘들었다. 그렇지만, 가전 / PC / 정보통신 기술의 복합 제품인 PVR은 홈 서버로 가는 길에 대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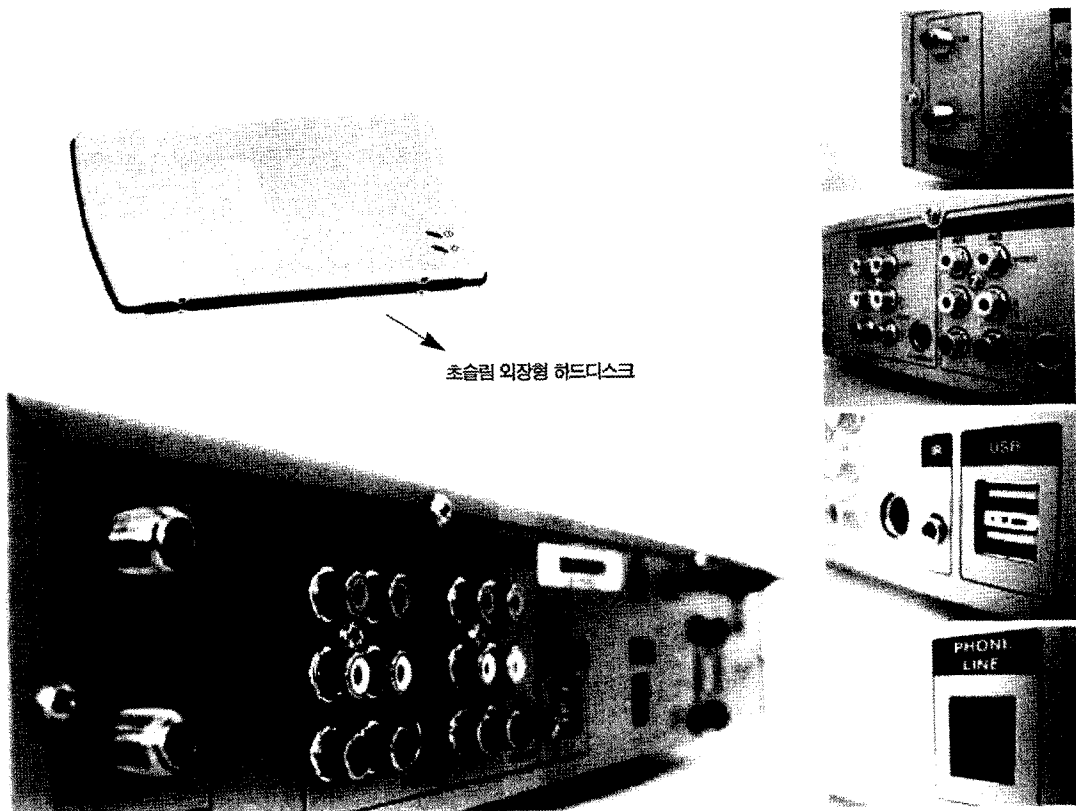
PVR은 PC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

경체제(OS)가 있고 CPU를 비롯한 각종 칩들이 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뎀이나 랜(LAN)을 통해 네트워킹이 가능하며, 외부기기와의 고속 시리얼 연결 포트(USB)가 있어 외장 HDD를 통하여 PC와의 프로그램 공유도 가능하다. <그림 3>은 모뎀 및 USB를 통해서 외부와의 연결 및 상호 연동이 가능한 PVR과 외장 HDD의 모습이며, <그림 4>는 무선 랜(LAN)을 통해 PVR 과 PC 및 인터넷과의 네트워킹 모습이다. 이렇게 PVR은 궁극적으로 홈 네트워킹의 호스트 역할과 인터넷 게이트웨이 기능을 흡수하여 홈 서버로 발전해 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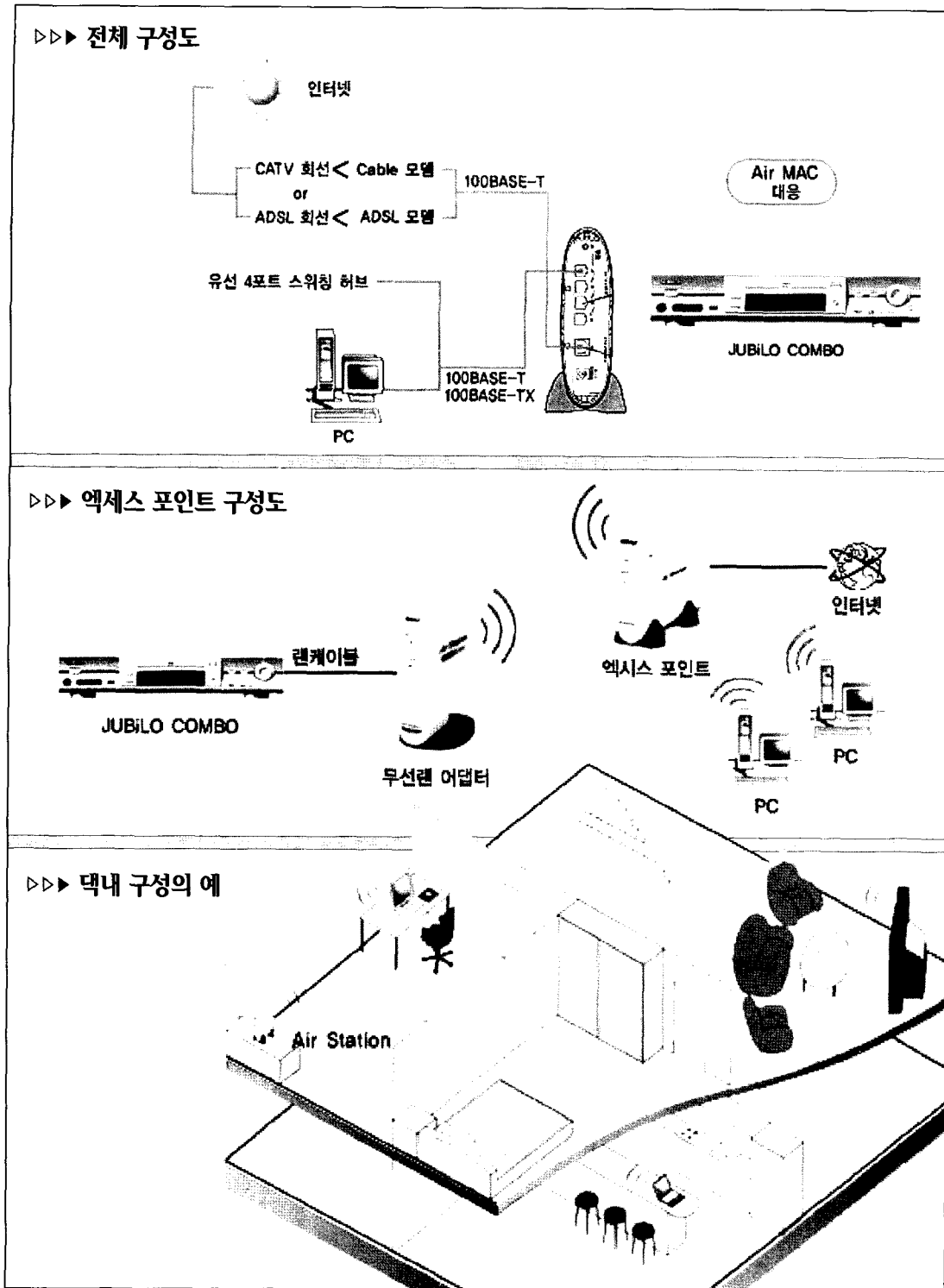
현재의 PVR이 가지고 있는 기능으로 한가지 빼놓

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홈 보안(Home Security)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PVR은 기본적으로 HDR 및 DVR 기능에서 출발을 했으므로 보안 카메라와 연동되어 실시간 보안, 녹화, 방문자 확인 등이 가능하다. 즉, TV를 시청하면서 방문자가 오면 문밖의 방문자를 TV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PVR은 이미 홈 서버로서의 역할을 상당부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각종 가전제품의 디지털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근거리 통신 및 제어모듈을 활용하여 거실의 TV 바로 옆에 놓이는 홈 서버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그림 3>



<그림 4>

5. 전망과 결론

PVR은 내장된 하드디스크에 기존 아날로그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은 물론 디지털 위성방송까지 별도의 테이프 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최고 120시간 이상 방송 녹화가 가능한 차세대 디지털 녹화기로서,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 시장에서는 시장규모가 급팽창하고 있는 차세대 영상 기기이다.

기존의 영상기기는 어떠한 형태로든 가전시장에 국한되어 영향을 주었지만 PVR은 이제 더 이상 가전시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PVR로 인하여 기존의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의 시청 행태가 변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PVR 공급사와 ABC를 비롯한 거대 방송사간에 법정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는 프라임 타임의 소멸이라는 문제를 넘어 디지털로 녹화된 프로그램의 유통 가능성도 있어 저작권 문제로까지 비화되었으며, 광고를 건너뛰는 기능 등으로 광고 대행사 및 광고주들을 바짝 긴장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PVR을 사용하는 시청자의 경우 전체 방송시청 시간이 오히려 증가하고 프라임 타임대의 방송이 더 많이 녹화된다는 점. 그리고, 시청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보는 빈도가 높아져 시청자의 로열티가 높아지고, 결국은 콘텐츠의 질이 관건이라는 점 등이 인식되면서 대립양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대형 방송사들이 PVR 공급사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아직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거실까지 디지털 네

트워크가 자리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녹화된 방송을 언제든지 외부 매체로 저장하고 복사 및 편집도 가능하게 해 주는 PVR이 가정에서 가장 큰 가전 제품인 TV 옆에 위치하면서 가정을 제어하는 "홈 서버"로 자리잡게 될 날 또한 멀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2002년 6월에 벤처기업인 (주)디지털엔디지탈에 의해 "JUBILO(쥬빌로)"라는 이름의 PVR 제품이 국내 최초이자 세계 4번째로 출시되면서 국내 가전사를 비롯하여 방송사들에게까지 매우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방송사는 미국과 같은 현상이 생길 것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아날로그 VCR이 급속히 PVR로 대체되면 똑같이 프라임 타임의 소멸이 발생할 것과 이에 따른 새로운 콘텐츠 개발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점이 기존 방송사가 가지고 있던 위상을 위협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시장 예측 전문가들은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PVR이 시장의 대세라는 점에는 공감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주)디지털엔디지탈 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을 비롯한 여러 업체들이 PVR 개발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2003년부터는 본격적인 PVR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곧 TV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음악, 전자상거래, 비디오 게임 등 방송망과 네트워크를 통해 가정에 제공되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콘텐츠를 저장할 수 있고, TV를 마음대로 제어하는 것 외에도 원격지에서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예약녹화를 하고 홈 보안 기능으로 집안의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필자 소개



이 규택

- 1989년 :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졸
- 1991년 :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 석사학위 취득
- 1995년 :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 박사학위 취득
- 1991년 3월~1999년 4월 : 대우그룹 회장비서실 PCS사업계획 담당 과장, 대우전자 영상연구소 선임연구원(VoD Part장) 전략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IMM팀장), Digital TV사업부 책임연구원(IMM팀장)
- 1999년 10월~현재 : (주)Digital&Digital 대표이사(연구소장 겸임)
- 주관심 분야 :